

‘바보 노무현’ 국민 가슴속에 지다

노前대통령 영결식 엄수 유골 고향 안치 온 국민 오열...서울광장 노제 50만 인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래 만인 29일 열린 국민장(國民葬) 영결식과 노제가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엄숙하게 거행됐다.

영결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 등 정·관계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정연씨를 포함한 유족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

영결식은 오전 5시경 봉하마을에서 발인식을 치른 운구 행렬이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군악대의 조악 연주로 시작, 송지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묵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인 약력보고, 공동장의위원장인 한승수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의 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승수 총리는 “이제 생전의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애도했으며, 한명숙 전 총리는 “대통령님은 온 국

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원했다.

영결식은 이어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의 종교의식, 노 전 대통령 생전의 영상 방영, 권양숙 여사를 포함한 유족과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고위인사 및 외교사절의 헌화, 국립합창단의 합창, 육·해·공군 조종대원들의 조총 발사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전국 공공기관에는 조기가 게양됐으며, 영결식 장면은 방송사 TV 뿐 아니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서울역 일대 대형 전광판에서도 생중계됐다.

광주·전남 시도민들도 29개 분향소와 버스터미널 등에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며 지켜봤다.

영결식을 마친 운구 행렬은 유족과 장의위원, 영결식 조문객들이 뒤따른 가운데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오후 1시20분경부터 광장 일대 도로까지 가득 메운 시민 50만명(경찰 추산 18만명)의 애도 속에 약 30분간 노제를 치

른 뒤 서울역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의 배웅을 받았다. 노제 후 일부 시민들은 서울역 광장 등에 남아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충돌을 빚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추모 인파에 가로 막혀 당초 도착 예정시간을 3시간 이상 넘긴 오후 6시 10분 수원 연화장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유골함은 이날 밤 늦게 봉하마을 정토원 법당에 임시로 안치됐다. 노 전 대통령은 49세 이후 사저 인근에 안장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무현 前 대통령 국민장

- 2 뜨거웠던 추모 일주일
- 3 발인·영결식·노제
- 4 광주·전남 표정
- 5 눈물로 보내다-화보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바친 弔辭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이십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옛 전남도청 분향소의 방명록과 만장 띠에 적어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친 조사(弔辭)들을 모았다.

-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박형준)
-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정한 정의를 보여준 당신! (이은혜)
- 당신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주)
- 내 손으로 뽑았던 첫 대통령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은영)
- 우리의 무관심을 제발 용서하세요 (서정애)
- 당신과 같은 대통령이 또 있을까요? (서지숙)
- 모두 외면하는 원칙과 상식, 개혁과 지방분권의 보루였습니다 (김현경)
- 마지막까지 홀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싸운 ‘바보’이셨습니다 (김만호)
-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윤승현)
- 다음 생에서도 꼭 우리 대통령이 돼 주세요 (국은영)

서해 NLL 中 어선 철수 시작

군당국, 北 도발 여부 촉각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철수를 시작해 군당국이 북한의 도발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NLL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이 어제부터 철수를 시작했다”면서 “중국 어선의 철수가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NLL 인근에서는 중국 어선 280여척이 조업 중이었지만 28일부

터 줄기 시작해 현재는 120여척 가량 남아 있다.

소식통은 “NLL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은 보통 6월 중순께 철수를 했다가 8월말에서 9월초 사이에 돌아오는 데 올해에는 2주 빨리 철수를 시작했다”면서 “중국 어선이 하루 사이에 160여척이 빠져나간 것은 중국 당국이나 북한에서 즉각 철수를 요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군당국은 중국 어선의 철수

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징후일 수도 판단하고 서해 북방한계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어선들이 철수를 시작한 것과는 달리 북한 어선들은 NLL 해상의 북쪽 해안가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Package
웨딩당식 27,000원 부터
이벤트홀
자세한 사항은 예약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8000

노란 물결 사이로 만길 떠나다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한 노제가 끝난 뒤 운구행렬이 송례문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